

# 천년만에 다시피는 찬란한 한국禪

## 구산선문 참선기행

### 징효대사

#### 홍녕선원 개창주

홍녕선원을 일으킨 징효대사의 법명은 절충(826~900)으로 황해도 풍산 출신이다. 사자산문의 홍녕선원을 번창시킨 장본인이다. 중국 당나라 마조의 수제자 남전선사에서 법을 받고 돌아온 도운스님 밑에서 16년간 수도했다. 스님은 절강국사 도운에 이은 사자산파의 제2조로서 화엄학의 무애법계연기(無礙法界緣起)에 입각한 깨달음을 터득했다. 화엄학에서 출발해 선의 세계에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의 선이 후대에 화엄학과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 특징이기도 하다.

### 수호마애상

#### 성지 요선정 지켜

홍녕선원의 수호불상이라 불리는 마애여래좌상(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74호)은 영일군 무릉리에 있는 요선정(靈仙亭) 옆 바위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요선정은 징효대사가 열반한 곳으로 1천여개의 시리가 나왔다는 불교와 인연깊은 곳이다. 요선정의 수호마애좌상은 타원형 얼굴의 중부한 양감과 크고 둥직한 코와 귀, 상체에 비해 작은 하체 등 정반대로 불균형한 형태이나 친숙한 미소와 힘찬 기상이 잘 표현된 이 지방의 대표적 마애불상이다.

### 보덕사

#### 단종 기리는 원찰

신라 문무왕(668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사찰로 처음에는 지덕사라 불렀다. 1457년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유배되었을 때는 노봉사(魯峯寺)로 고쳐 불렀으며, 단종이 순화한 후 보덕사로 개칭해 단종의 영혼을 기리는 원당사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23호로 지정된 극락보전을 비롯 사성전, 칠성각, 부속암자인 금동암 등이 있다.

### 12월 - 사자산문

“불교의 모든 길은 선(禪)으로 귀결됩니다. 참선을 통해야만 오도할 수 있고,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 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수행도 할 수 없어요. 여기 부처님 공전에 들어 왔으니, 화두 있는 이는 화두잡고, 화두 없는 이는 부처님과 한번 만나 보시오. 세세생생 큰 인연이 됩터이니...”

5일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 적멸보궁. 현대불교신문이 기획한 '구산선문 참선기행'의 마지막 답사지인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법흥사 구담(九潭)스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저마다 가부좌를 들고 앉았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 도운스님 사자산문 열어

사자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법흥사(주지 도암)는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자산문(獅子山門)의 발상지이자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한 곳이다. 자장을사가 문수보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강원도 새곳을 물며 사리를 봉안하고 기도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곳에 틀러 적멸보궁을 지었다 전한다. 처음 이름의 이름은 홍녕사(興寧寺)였다. 사자산문의 개조인 절강선사 도운(道允)스님의 제자인 징효대사 절충(折中)스님이 홍녕선원을 열어 선종의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파의 중심도량이 되면서 크게 선종을 떨쳤다. 당시 신라의 현감왕은 이 절을 중사상에 예속시켜 사찰을 들보게 할 정도로



◇ 나는 누구인가? 참선기행단들이 사자산문 법흥사 적멸보궁에서 참선수행에 들었다.

## 홍녕선원 복원불사 추진한창 불사리탑 자장스님 토굴 보존

지극한 관심을 보였는데, 구산선문이 번창할때는 2천여명이 넘는 스님들이 수행했으며, 공양준비를 위해 밭을 짓으면 10여리밖에 떨어진 수주면 무릉도원까지 그 풀이 흘러갔다고 한다. 그러나 홍녕선원은 거듭되는 병화로 소실된 뒤 천년 가까이 소홀해서 말끔한 유지해 오다가 1902년 비구니 대원각(大圓覺)스님이 중건하고 법흥사로 개칭했다.

법흥사는 천년적 선문대찰의 면모를 다시 살리기 위한 불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사찰 곳곳에 목재와 석재들이 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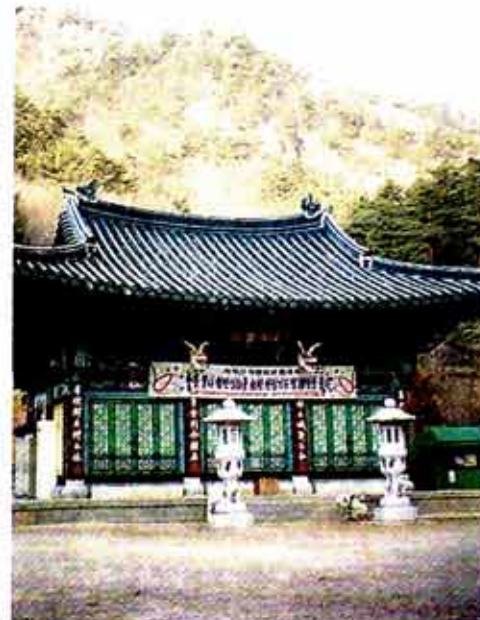
어져 있어, 조금은 어지러워 보이지만 예전의 명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 곳곳에서 배어났다.

법흥사 극락보전 앞 보물 제612호로 지정된 징효대사 보인탑비에는 현강왕때 홍녕선원을 개설해 선종을 일으키고, 요선암에서 입적한 스님의 영적이 기록돼 있다. 징효스님은 '삼계(三界)가 다 공하고 모든 인연이 전부 고요하다. 내 장차 떠나려 하니 너의들은 힘겨 정진하라. 쿠디 선문을 수호하고 종지(宗旨)를 무너뜨리지 말아서 불조(佛祖)의 은혜를 감도록 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한 뒤 앓은 채로 입적했다 한다. 이 부도비는 병화로 소실된 홍녕사가 중건되던 해인 944년에 세워졌다. 비신의 높이가 2.77m 너비 1.44m이며 형식은 귀부위에 비상을 올려놓고 그 위에 이수로 덮은 산라고 러시대의 전형적인 석비다.

#### 삼계·인연이 모두空하다

극락전 위로 20여 m를 올라가면 적멸보궁이 자리잡고 있다.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29호로 지정된 법흥사 적멸보궁은 정면 3칸, 측면 단칸의 목조건물이다. 적멸보궁 좌측 뒤에는 자장을사가 수도하던 곳이라고 전해는 토굴(석실)이 있고, 좌측에는 자장을사가 당나라에서 진신사리를 넣어 사자들에게 싣고 왔다는 석함(石函)과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서 있다.

적멸보궁뒤로 높이 서있는 사자산에는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29호로 지정된 법흥사 적멸보궁.

백의관음상과 석가모니불, 달마대사 등 소나무와 기암괴석사이로 수많은 불상이 고굴에 위치하고 있다. 보는이의 눈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 불상은 사자산의 자랑이기도 하다.

2천여명의 스님들이 수행했다는 홍녕선원지(興寧禪院址)는 법흥사 아래쪽 민가옆에 위치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사자산문의 중심수행지이었던 이곳은 현재 주춧돌과 이음돌을 스님의 부도 17만 남야 그 시절을 어렵게나마 짐작케 한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홍녕선원지에 선 기행단들은 "지금도 이렇게 황량한 터만 남아있지만 앞으로 수년내에 이곳에 국내의 스님과 불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선도량을 일궈낼 것"이라는 법흥사 선학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마음으로 합장기원했다. 한국선의 정통 맥이 계속 이어지고, 수행의 수행자의 땅방울속에 한국불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그날을...

이은자 기자 (eilee@buddhapa.com)



◇ 홍녕선원에서 사자산문의 선종을 떨친 징효대사 보인탑비(보물 제612호).

## 8차례 답사...구산선문 복원 필요성 절감

### 결산

한국불교의 선맥을 따라 지난 4월~12월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구산선문 참선기행'은 사자산 법흥사를 마지막 목표로 회향했다.

4월 가지산문 보림사를 시작으로, 5월 실상산문 실상사, 6월 사굴산문 굴산사지, 7월 동리산문 대안사를 함께했으나, 9월 회양산문 봉암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10월 봉림산문 불림사지, 11월 선주산문 선주사지, 12월 사자산문 법흥사를 물며 한국 전통 선맥의 흐름

을 살펴보고 심신을 다지고, 한국불교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구산선문 가운데 회양산문과 동리산문을 제외하고는 선문의 면모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 현재 사자산문과 가지산문, 실상산문은 그 명맥은 이어오고 있으나 선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사굴산문, 봉림산문, 선주산문 등은 절터만 남아있어 한국불교의 증흥을 위한 구산선문의 복원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더불어 남북분단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수미산문 풍포사지는 통일된 그날, 다시 찾아갈 것을 기대한다.

## 마하몰... 새천년맞이 추천상품 특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 수암만다라 옥침



수암만다라옥침은 두개의 회전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표출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인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암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효과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력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웨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 대나무 숲 임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빻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태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숲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온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숲을 가까이 하길 위한 것이 숲 임색천입니다. 숲 임색천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정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드 ■색상 : 흑색/회색 ■가격 : 60,000원

### 바른 자세 건강방식 참선명상방식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명상용. 이젠 바르게 허리펴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가 격 : 27,000  
사이즈 - 가로 43 cmX 세로 33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8-025009  
의정등록 출원 제 14387호

###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밭우



여기 이 황토 밭우를 발수하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무박하고 자연적인 용기로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유원의 절지한 고종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가 격 4합 : 6만원 - 무게 2.7g  
2합 : 3만원 - 무게 1g

###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마하몰에서는 천여 년 동안 관대장경관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에 소장되어온 고려불교 예술의 걸작(結晶), 고려(高麗)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전 80장 원본(完本)을 순한지만 영당성지(影堂聖址)와 특수 인쇄기법으로 완벽하게 간행하여 불자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규격 : 57.5 (가로) X 23cm (세로))

1.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고려 화엄변상도 전역 원본
2. 팔만대장경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 소장본 원본
3.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화엄변상도 배설 목자 중첩 (前 해인사 佛조, 後 해인사 佛조) (佛조는 배설)
4. 전통민지의 맥을 이은 佛조스님이 제작한 최고의 순한지(純韓紙) 영당성지(影堂聖址) 사용
5. 본 화엄변상도는 영단(英단) 또는 화엄변상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본 화엄변상도 전본은 100%의 한자본입니다.

■가 격 : 각 330,000원

### 불자반아반지



불자의 자구심을 새겼습니다. 16개의 류벽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우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목력(十六大木力)  
지력(志力), 의력(毅力), 행력(行力), 정력(定力), 강력(強力), 지력(智力), 화력(化力), 덕력(德力), 변력(變力), 색력(色力), 신력(神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발력(弘發力), 힘아력(擘力)

■가 격 : 18K 130,000원  
14K 120,000원  
용량 : 16개 류벽 / 금 15 돈